

보도 일시	2023. 1. 19.(목) 배포 시	배포 일시	2023. 1. 19.(목)
담당 부서 <총괄>	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책임자	과 장 홍기성 (044-201-2551)
		담당자	사무관 김석재 (044-201-2555)

##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과 차단을 위한 방역상황 점검

- 설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빈틈없는 방역태세 유지 당부 -

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이하 중수본)는 설 명절 기간에도 빈틈없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1.19.(목) 농림축산식품부·행정안전부·환경부·농림축산검역본부·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관련 기관과 지자체가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가축전염병 발생상황을 진단하고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였다고 밝혔다.

### <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>

1월 18일 기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63건\*이 발생하였고, 야생조류에서는 139건이 검출되었다.

\* 가금농장 발생 현황(63건): 오리 33건(종오리 8건, 육용오리 25건) 닭 28건(산란계 21건, 육계 3건, 종계 3건, 토종닭 1건), 기타 2건(메추리 1건, 관상조류 1건)

\*\* 주요국 발생상황: 미국 240건, 유럽 410건, 일본 60건

이번 바이러스는 병원성이 강하고 야생조류에서 많이 검출되는 상황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축산농장의 방역 조치로 농장 간 수평전파를 차단하고 있다.

중수본은 최근에도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\*하였고 야생조류에서 지속해서 검출되고 있으며, 설 명절 귀성객 및 차량 증가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하면서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방역관리 대책 추진을 당부하였다.

\* 1.1.(경남 김해), 1.2.(경기 김포, 연천), 1.7.(경기 고양)

첫째, 설 명절 기간에도 가축방역의 3요소인 ①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홍보하고 ②민관합동 소독과 ③신속한 정밀검사가 빈틈없이 이뤄지도록 24시간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·관리한다.

둘째, 설 명절 전과 연휴 기간에도 과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(경기·충남), 산란계 밀집단지(10개소), 대규모 산란계 농장(144호) 등 고위험 농장에 대한 소독과 방역실태를 점검한다.

셋째, 설 명절 후에 소독·점검과 함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기 확인하여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일제 정밀검사(1.25.~1.31.)를 시행한다.

### < 아프리카돼지열병 >

중수본은 올해 1월 5일 경기도 포천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처음 발생하였고, 1월 11일에는 강원도 철원군 소재 돼지농장에서도 추가로 발생하였다.

\* 총 30건 발생: ('19년) 14건 → ('20년) 2 → ('21년) 5 → ('22년) 7 → ('23년) 2

그동안은 야생멧돼지 활동이 증가하고 영농활동이 늘어나는 봄·가을철에 주로 발생했으나, 최근의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연중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.

또한 최근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검출상황을 살펴보면 경기·강원을 넘어 충북·경북 북부\*까지 확산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, 이 지역까지 추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면서 중수본은 지자체와 관계기관의 야생멧돼지 개체 수 관리와 방역 관리 및 농가의 철저한 시설 보완을 당부하였다.

\* (~'21.8.) 경기·강원 북부 → ('21.9.) 강원 남부(정선) → ('21.11.) 충북 북부(단양·제천) → ('22.1.) 충북 남부(충주·보은) → ('22.2.) 경북 북부(상주·문경·울진)까지 확산

우선, 야생멧돼지 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를 중심으로 영동·옥천·무주·김천지역에서 야생멧돼지를 집중적으로 포획하여 개체 수를 감소시키고, 야생멧돼지 폐사체 검사를 강화하여 오염원을 조기 발견 및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요청하였다.

그리고 방역상 취약요인\*이 있는 돼지농장을 중심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강화된 방역 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\* 돼지 밀집단지, 멧돼지 방역대, 경영 불안정, 복합영농, 타축종 사육, 폐업 예정, 산·하천 인접 등

정황근 중수본부장은 “설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앞으로 2주가 방역의 가장 중요한 고비이므로 지자체장을 중심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차단 방역에 총력 대응해 달라”고 강조하면서, 전국 가금 및 돼지농장에서는 철저한 농장 소독과 장화 갈아신기, 손 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과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방역 당국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\* 가축전염병 의심 신고 전화: 1588-9060, 1588-4060

붙임 설 명절 방역수칙 홍보자료

담당부서 <AI>	방역정책국	책임자	과 장 홍기성 (044-201-2551)
	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	담당자	사무관 김석재 (044-201-2555)
<ASF>	방역정책국	책임자	과 장 유재형 (044-201-2531)
	구제역방역과	담당자	서기관 김정주 (044-201-2537)





고향 방문시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축산농장 방문 자제(오염원 유입 위험!)



불가피한 경우 대인소독 및 방역복 착용, 사육시설 진입 금지

오염 우려지역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.



წყ수·산책 등 철새도래지 출입 금지



경기·강원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역 입산 금지

축산농장 방역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
외부 사람·차량 출입을 엄격히 통제



"농장 4단계 소독" 매일 실천



성묘 직후 사육시설 출입 금지, 차량·의복·신발 소독



축산 관계자 간 모임 자제

